

입문

일상에서 만나는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 /성열 역음
 불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는 것은 부처님과의 만남이다. 그러나 그 만남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부처님 말씀을 골라 듣기란 더욱 어렵다. 그렇기에 이 책은 더욱 값지다. 믿음, 수행, 가르침, 세속의 양으로 분류하고 그 주제에 맞는 작은 소주처럼 부처님 말씀을 읽었다.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먼저 편찬되었다는 아함경을 중심으로 하였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믿고 아득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현실적 삶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다. 늘 곁에 두고 부처님 말씀을 새기기에 이보다 더 좋은 책은 없다. **현원사 13,000원 (02)365-5251**



에세이

반만년 산하 '우리얼굴'

■산천을 담은 사람들 / 고은 외 지음
 땅과 더불어 호흡하는 삶은 거짓일 수 없다. 저 농부의 손을 보라, 소를 바다에 갈라진 어부의 파안대소를 보라. 이들이 있는 한 땅은 골짜기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책은 이렇듯 반만년을 민족과 함께 살아왔고 또 살아갈 나라 산천의 혼과 아름다움을 전한다. 문인 12명과 화가 13명이 지난 1년간 전국을 누비며 글과 그림으로 민족과 고국을 함께 한 '우리얼굴' 백두대간을 보여주는 답사기.
 백두에서 한라까지 고은 신형림 고희영 등의 문인과 김경원 임옥상 민정기 등의 화가들이 1대 짝을 이뤄 자신의 연고 산천을 찾아 각각 글과 그림 4~5점씩을 실었다. 시인(하늘)의 말 백두산을 비롯해, 불국토의 영원이 어린 경우 남산, 낙산의 동해와 아버지와 같은 팔공산, 사슴을 버리지 않는 땅 백두산, 여명의 땅 한라산 등이 민족의 기개를 일깨운다. **효형 9,000원 (02)756-0262**



기타

佛名의미 자세히 소개

■佛명사전/고성훈 역음
 불명(佛名)은 자성을 상징하는 방편으로서 자성을 일깨우는 도구다. 모든 거서와 보살들이 자나 불명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각각의 불명이 갖고 있는 뜻을 다양하고 자세하게 해설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불명사전으로 거사불명 7백여개와 보살불명 7백여개 등 모두 1천4백여개의 불명을 실었다. 아울러 불교의 여러 가지 경전 구절을 곁들여 수록함으로써 자칫 불명만 설명되어 산상하기 쉬운 사전식의 체계에 다양함을 기미했다. 또 글심도를 위해 수해(受戒)의 의미와 의식 순서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록했다.
 시시처처 누구나 할 것 없이 5개의 불명을 받아 지니고 그 불명대로 수행하고 공덕을 쌓는다면 이 사과는 날로 공효로일 것이라는 열의도 책 속에 담았다. **우리출판사 20,000원 (02)313-5047**



금주의 베스트

눈밝은 선지식들 화두 수행담

■화두 짓는법/토방 편집부 역음
 선은 다어삼 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근간에 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신수행하는 일반인들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제대로 화두를 짓지 않고서는 올바른 향신수행은 어렵다.
 이 책은 역대 눈밝은 선지식들이 어떤 화두를 들고 정진했는가에 대한 글을 모은 것으로 처음 향신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안내서다. 화선과 정의와 함께 상철 경담 민공 한양 송담스님 등 14명 스님의 화두 드는 법과 화구 향신법이 일화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향신을 하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 생사심(生死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상이 일어난다고 '심(心)자 한 자에 대상 모든 아치가 담겨 있다고도 하는데...'
토방 7,000원 (02)722-4588



불교에 대한 구체적 이해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권영한 지음
 불교를 쉽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리보다는 사상에 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물과 불상, 그림 등 불교의 모든 것을 컬러 화보와 함께 꼭 알아야 할 부분만 명쾌히 설명한 것이 이 책의 장점. 3백50여점의 사진과 30점의 그림 그리고 18개의 도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국 사찰을 직접 찾아다니며 찍었기에 현장감도 생생히 전달된다.
 한국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 높아져 가고 있는 요즘 한국인의 마음과 한국의 얼을 새기고 있는 사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곧 우리 자신에 대한 자각이자 또다른 창조를 위한 길이다.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서정적인 문체가까지 문은 문체가 권안함을 더해준다. **천원문화사 15,000원 (02)704-1626**



열린마음 통해 보는 세상

■개짓는 소리 /대주스님 지음
 열옴으로 여는 데 길들여진 사람은 열옴으로 먼저 문을 연다. 하지만 여닫는 문이 열릴리 없다. 문제는 마음의 문. 어떻게 생긴 문이든 간에 마음의 문은 자기 스스로 열어야 권하게 열리는 법. 이 책은 닫힌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을 담았다. 교훈을 줄 만한 단편들로 채워져 있는데,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서부터 자살, 가정폭력, 문명의 이기로 인한 인간성 상실 등에 관한 문제들을 갖가지 우화를 등장시켜 예리하게 파헤쳤다. 읽고 나면 마음이 한층 상쾌해 질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백선출판사 6,000원 (02)923-3867**



수행자의 삶 '바른 길'

■힘든 세상 도나 닦지 /호림스님 지음
 소나무의 잣나무는 눈 속에서 더욱 푸르게 보인다. 수행자의 삶이란 이래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글도 눈이 온 뒤에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의 직조를 안다고 했을 것이다. 상행 때로는 수행자들의 이야기들을 묶었다. 주변환경에 자신의 직조를 할지 않는 수행자들의 고뇌와 구도열이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누구나 하는 말이 "갈수록 세상이 힘들다"는 한탄이다. 그렇지만 세상을 향해 또 자신을 향해 바른 길을 가려는 몸짓으로 외치는 절구는 중생들에게는 희망의 메아리처럼 "힘든 세상 도나 닦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저자의 독백. 우리 삶의 나침반은 바로 이것 아닐까. **가서원 7,000원 (02)335-7554**



참된 삶 이끄는 주옥같은 금언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스님 지음
 '남을 해할 마음을 갖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상대는 마음을 푸지 말라. 남의 흉을 예에 찾지도 말고 약점이 단점을 들추지도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질 단속하여 정 의로써 자신을 닦아 나가라'(잡야합경)
 (아함경) (법구경) (산가귀경) (유마경) 등 경전과 고승들의 어록, 통찰에서 이런 주옥같은 금언만을 골라 뽑은 금언집. 참된 삶은 무엇이고 수행이란으로 가는 길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질리는 무엇인지 등을 주제별로 나눠 묶었다.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삶의 양식이 되기에 충분하다. 한 번 읽고 그날 지나치게 보다는 어려울 때 꺼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민족사 5,000원 (02)732-2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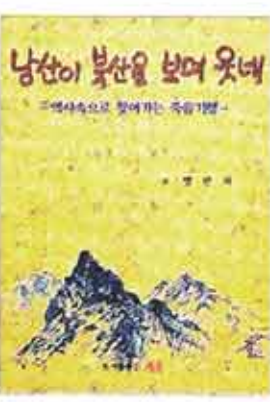
예불, 그속에 깃든 의미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김현준 지음
 사찰의식의 시작인 도량학에서부터 법공, 법공 등 사찰을 치는 까닭, 계율과 선경, 향공양을 올리는 까닭, 해탈지경의 오분양에 깃든 의미, 직심위명례를 이루는 법안 등 예 불문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상세히 풀이함으로써 예 불에 깃든 깊은 뜻을 밝히고 있다.
 "예불문 속에 깃들여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불공이요 상보의 카피를 곁 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 김현준은 이 공부를 하는 자세로 이 책을 읽기를 권한다.
 보살들의 자비와 관음들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등을 고사를 통해 강령적으로 풀이하고 있어 읽는 재미도 크다. **효형 5,000원 (02)587-6612**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맹관자 지음
 역사 속으로 찾아가는 죽음기행을 떠났다. 거기에서 세네 카와 네르, 광혜공과 마지막 광혜 부의, 소크라테스와 손 시일, 두보와 김삿갓, 모차르트와 슈베르트, 동소공과 스칼 린 등 이불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 1백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되찾는다. 죽음기행의 종착역은 다름 아닌 열정적인 삶을 이 책은 보여준다.
 삶을 가장 확실히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름아닌 죽음. 남은 생을 생각해 보라. 눈물이 나지 않는가. 이처럼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요즘같이 어지럽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도 더불어 느낄 수 있어 금상첨화다. **세원출판사 7,000원 (02)3462-2277**



구도자가 찾은 깨달음 세계

■선사들이 가려서 세상/신규탁 지음
 도(道)가 무엇이나고 묻는 객승에게 조주스님을 말한다. "도란 너의 힘 닦아 나며 있다." 그래도 못알아듣고 객승은 다시 묻는다. "그런 도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대도(大道)를 여룬 것입니다"라고 조주스님의 대답은 냉담하기만 하다. "큰 길은 일관님 사시는 장안에 있다"
 용담선사 일화 등 52편의 이야기가 바로 그 깨달음의 길을 보여준다. 깨달음의 세계, 거기가 바로 도에 미처서 도를 찾는 이들을 일깨우는 말이다. 갈 길을 못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길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다고 믿어 그 길에 출려 일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한다. 선어록을 읽는 방법도 친절히 제 시화를 문만 아니라 문고간이라 읽기 쉽고 편하다. **장경각 5,000원 (02)269-3227**



금주의 추천도서

종교학 입장에서 본 불교사상 '신선'

■종교론·진리론/사이구사 미쓰요시 역음
 불교를 종교학·종교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불교가 제시하는 진리와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책은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불교를 고찰한 학술서. 일본에서 발간되는 '경과 불교사상' 제5권 (종교론·진리가치론)(1982. 理 解社. 통경)을 번역한 것으로 현대 일본의 불 교학·종교학·철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의 논문을 수록했다.
 제1부 '종교론에서는 종교학·종교철학·종 교심리학의 시각에서 불교를 바라봄으로써 불 교의 종교성과 종교로서의 불교를 고찰했다. 제2부 '진리론에서는 인도·중국·일본 등 에 서 전개된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진리와 가치 문제를 논하고 그것들의 추구, 달성과정, 사상적 특징 등에 접근하고 있다.
 이를 논고는 고리 중심적 내지는 문헌 중심적 연구에 중점을 두었던 일본 불교학계의 경향 에서 탈피, 논고자들 각자의 주제의 시각에 입각해 불교 자체의 사상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하다. 역자는 조관호씨. **불교시대사 12,000원 (02)730-2500**



불교음반유통
 음반제작/EVENT기획

松江企劃

내면의 울림
진리의 法音
송강기획만이 자랑하는
불교의 Mania!

명상말씀, 찬불가, 불교음악, 법문, 경전, 독경

· 송강기획은 부처님의 법음을 음반으로 보급하는데 신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
 · TEL: (02)745-6015
 · FAX: (02)745-6017

협·찬·사
 불교음반 기획제작
 불교 음반 유통 기획